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9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아랍에미레이트연합, Khalifa 신항 건설 현대 ENC와 계약 체결	2
□ 인도, 니코바르섬 환적항 개발	4
□ Ceva Logistics Group, 남아공 크롬 광석 운송 계약	5
□ Kenya, Lamu항 프로젝트 추진	5

□ 아랍에미리트연합, Khalifa 신항 건설 현대 ENC와 계약 체결

-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 항만회사(ADPC : Abu Dhabi Ports Company)와 현대 ENC는 329백만 달러 규모의 Khalifa Port & Industrial Zone(KPIZ)의 사업 계약을 체결함

<Khalifa 항만산업구역(KFIZ : Khalifa Port and Industrial Zone) 개요>

- 본 사업은 아랍에미리트가 대규모 산업 투자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수립한 'Abu Dhabi Vision 2030'의 일환으로 계획됨
- 본 사업은 항만구역과 산업구역(자유무역지역)을 5단계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만구역, 중공업 및 경공업 구역, 무역 및 물류단지가 조성 (그림의 Area A)
 - 주거 상업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이 조성 (그림의 Area B)
 - 2030년 까지 처리능력 1,500만TEU의 컨테이너 터미널, 3,500만톤 처리 규모의 벌크 및 액체화물터미널이 포함된 Khalifa 항만 건설
- 총사업비는 240억 달러 규모이며, 사업관리는 Abu Dhabi Ports Company(ADPC)에서 담당할 예정임

<Khalifa 항만산업구역(KFIZ : Khalifa Port and Industrial Zone)>



<Kalifa 신항 건설 개요>

- Kalifa 항만은 Offshore Port로서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하여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특징임
 - 현대 ENC가 수주한 1단계 사업은 2012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35억 달러 규모임
 - 연간 200만 TEU의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600만톤의 처리능력 보유
 - 터미널 운영은 DP World사의 합작회사(JV)인 Emirates Ports Comany가 담당할 예정
 - Khalifa 항만의 건설로 기존 Mina Zayed항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폐쇄되며 모든 기능을 Kalifa로 이전 시킬 계획임
- 현재까지 1단계 계획만 발표되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추후 계획이 발표될 예정임

<Khalifa Port 조감도>



자료 : CI-Online 2010. 9.24 및 Ameinfo(www.ameinfo.com) 2010. 9. 19 참조

□ 인도, 니코바르섬 환적항 개발 계획

- 인도정부는 니코바르(Nicobar)섬에 동남아시아 및 스리랑카 항만과 경쟁하기 위한 환적항을 개발할 계획임
 - 니코바르섬은 말레이시아 수마트라섬으로부터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인도의 작은 섬으로, 향후 니코바르 환적항이 개발되면 현재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인도 남서부의 물량을 유치할 계획임
 - * 2008년 기준 인도 남서부 물동량은 6,072천TEU임¹⁾
- 니코바르 환적항은 2015년 3.2백만TEU, 2020년 17.2백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될 계획임
 - 초기에는 12,000TEU급 선박의 기항이 가능한, 안벽길이 1,600m의 4선석을 개발할 예정임

<니코바르섬(Nicobar) 위치>



자료 : Cargonewsasia, 2010. 9. 8.

이진주 연구원 ☎ 02-2105-2982, jinjoo@kmi.re.kr

1) 본 물동량은 CI-online 자료를 기준으로, 인도 남서부 주요 항만인 Jawaharlal Nehru, Kandla, Kochi, Mumbai, Mundra, New Mangalore, Pipavav, Tuticorin 항만 물동량의 합계임

□ Ceva, 남아공 크롬 광석 운송 계약

- 2010년 9월, 네덜란드의 Ceva Logistics Group²⁾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광산회사인 Rui Star Trading³⁾과 매년 190만 달러 상당의 크롬 광석 운송 계약을 체결함
 - 운송물량은 Rui Star사의 크롬 수출 전량으로 연간 4,600TEU 규모이며,
 - 운송계약은 남아공의 크롬광산에서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Ceva 전용 창고까지의 육상운송과 남아공에서 극동아시아까지의 해상운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본 계약은 Rui Star사의 물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에 대한 요구와 Ceva사의 글로벌 사업 영역 확대 요구를 상호 충족시키는 결과라고 양 사는 밝히고 있음
 - 이 계약을 통해 Rui Star사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추면서 핵심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 Ceva사는 다방면에서 축적된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역량을 증명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음

□ Kenya, Lamu항 프로젝트 추진

- 2010년 9월, 케냐 정부에서는 케냐 북부지역의 Manda Bay에 위치한 Lamu에 14억 달러 규모의 다목적 부두 건설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지역의 준설 및 토지개간
 - 총 3개 선석 건설
 - 100,000 dwt급 벌크 1선석
 - 300,000 dwt급 일반화물/다목적 부두
 - 8,000TEU급 컨테이너 1선석
 - 철로, 창고, 사무실 건물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
- 이에 따라 케냐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외국 기업 및 투자관련 기관들에 공식적으로 2010년 10월 15일 오전 10시(동 아프리카 기준시)까지 투자 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투자자 명단을 취합하여 구체적인 입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2) 세계 약 170여개 국가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46,000여명이며, 2009년 매출액은 55억 유로임

3) 카본 및 철광석 채굴 전문 회사임

- 본 프로젝트는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18개월간 지체되었으나, 아프리카 자원 개발을 원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냐 정부는 Hutchison, Bollore Africa Logistics, DP World, ICTC, APM 등과 같은 세계적인 운영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Lamu 프로젝트는 케냐 정부의 “비전 2030”의 인프라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Lamu항-수단 남부 지역-에티오피아 운송(LAPSSET) 회랑 프로젝트의 일환임
 - 케냐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단 남부와 에티오피아를 연계하여 케냐 북동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 시킬 계획임

<Lamu항 위치>



자료: CI-Online, 2010.9.14.

남경오 연구원(☎ 02-2105-2929, reinhard79@kmi.re.kr)